

글로벌광통신

- 주소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0-11
- 주요제품
광케이블, 광센서
- 연락처
062-973-6114
- 대표
박인철

글로벌광통신 '글로벌시장을 열다'

글로벌광통신은 FTTH(Fiber To The Home) 광케이블, 센서 케이블, 응급복구 및 특수목적용 광케이블 등 거의 모든 통신용 광케이블 분야에 진출해 있다.

옥내용 광케이블은 고객의 요청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어려워서 대기업이 꺼려하는 틈새 제품으로 기존의 LAN 케이블을 대체하기 위한 제품이다.

적극적인 시장공략을 통해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 10여 개국 80여개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이 제품과 광커넥터를 결합한 광점퍼 코드는 국내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FTTH 광케이블은 덕내 광가입자망 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제품군으로 국내 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

UL, GOST 등 해외 제품인증을 통해 호주, 베트남, 노르웨이, 영국, 대만, 러시아, 미국 등 해외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광통신은 광수동부품인 Fiber array와 Splitter를 상품화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인력과 설비, 공장 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다.

지난해 1월부터 보다 전략적인 신사업 수행을 위해 기존 사업부와 독립된 광부품 사업부를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신규제품의 시장진입을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광통신은 광 응용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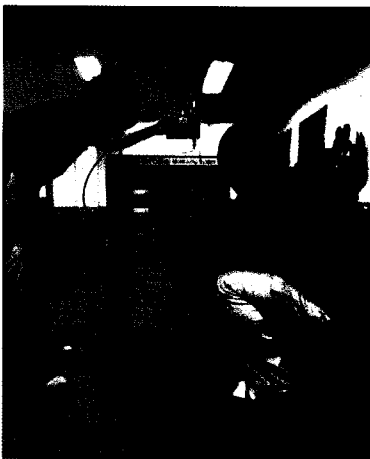
광센서 케이블을 그물망 형태로 감지하는 과학화 경비 시스템인 폼 시스템(FOM system)과 센서케이블과 레이저 기술을 바탕으로 온도변화 등을 측정하는 화재감시분야 등에 다양한 응용이 가능한 온도분포 광센서 시스템(ODTS system) 등을 개발해 상품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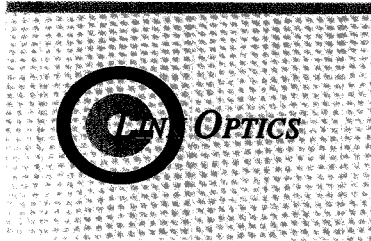
올해부터 가시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소에서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바이오센서용 근적외선 분광기 시스템, 광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광통신은 2004년 이후부터 전년 대비 매년 4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122억원, 2009년 최악의 글로벌 경영위기 속에서도 전사적인 내부혁신과 FTTH시장을 겨냥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 156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기존 제품에 대한 기술력 향상과 신사업 분야의 제품 출시 등을 통해 작년에는 200억원, 올해에는 500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설비 투자와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링크옵틱스

- 주소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9-63
- 주요제품
광 패치코드, 광커넥터연마기, LED응용기기
- 연락처
062-971-5654
- 대표
최용원

광통신부품 전문...LED 융합 최고기술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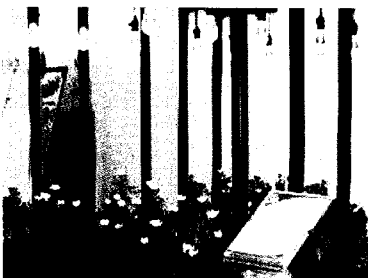
링크옵틱스(대표 최용원)는 광통신부품 및 LED응용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2005년 4월 최용원 대표가 광주 남부대 창업보육센터에서 창업 후 현재는 광주 R&D특구내 LED 밸리에 위치하고 있다. 링크옵틱스는 FTTH 구축 공사에서 사용되는 광 패치코드·광커넥터연마기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되는 제품은 광산업진흥회의 공동브랜드 럭스코(LUXCO)의 상표사용 승인 취득과 KOLAS의 텔코디아(Telcodia) GR326인증 시험을 통과했다. 그 중 휴대형 광코어 연마장치는 2개의 기술특허를 취득했으며 이더넷 전송장치 등 총 12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술혁신형 이노비즈(INNO-BIZ) 인증, 기술신용보증기금 AA등급·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했으며 세계적 통신사 알카텔-루슨트 협력사로 등록되었다. 또 덕내광가입자망(FTTH) 시장을 겨냥해 현장에서 직접 광통신 부품을 연마해 사용할 수 있는 '휴대형 광커넥터 연마기'의 다양한 모델을 개발해 국내외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현재 링크옵틱스는 LED 응용제품 시장에도 도전하기 위해 LED를 이용한 식물 성장조절 및 해충방제 시스템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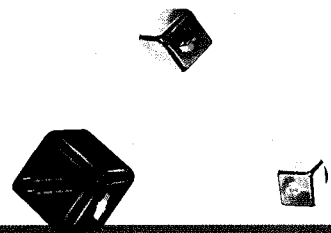
이는 식물성장·억제에 효과가 있거나 해충이 기피하는 파장대역의 LED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신기술을 응용한 제품이다. 뿐만 아니라 LED를 활용한 실시간 독거노인 응급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꾸준한 제품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LED 식물조명 'LED2090'을 개발해 시설농가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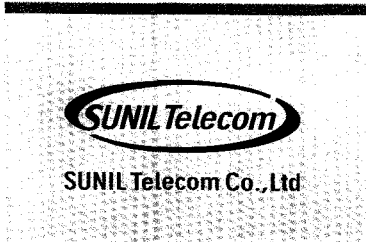
LED 식물조명은 식물의 광합성 및 엽록소 작용에 직접 효과를 미치는 LED 특정 파장을 통해 식물성장 및 개화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병충해 방제에도 효과가 크다.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폐막한 '2011년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컨벤션'에 광주 대표 브랜드로 전시돼 관심을 모았다.

링크옵틱스는 식물조명 LED전구 및 해충방제 시스템 등 관련 특허(특허 5건 출원 및 등록)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녹색 LED 보급사업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국가 전체 조명의 60%(공공기관은 100%)를 LED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LED2090





선일텔레콤

- 주소
전남 화순군 도곡면 대곡리 253번지
- 주요제품
광섬유케이블접속함, 광섬유케이블 포설기
- 연락처
061-373-7500
- 대표
김규식

독자적 기술 확보 수입대체 효과 특출

선일텔레콤은 광섬유케이블접속함 전문 생산업체로서 1983년 통신선로기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출발했다. 지난 92년 전남 화순군 도곡농공단지로 생산시설을 확장 이전한 후 꾸준한 매출 증가와 함께 광통신 전문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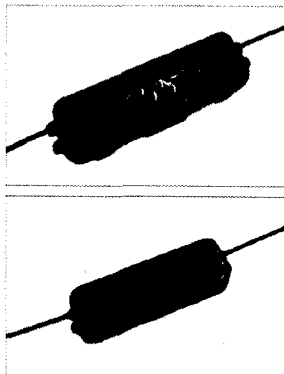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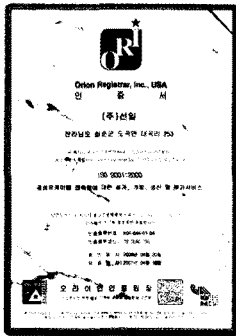
90% 이상 해외제품이었던 현장조립형 광통신 네트워크의 국내개발에 성공한 이 회사는 독자적인 기술 확보와 함께 수입대체 효과도 특출히 거두고 있다.

만홀과 전주 등 일반통신기자재 제조업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인터넷, 데이터 통신의 발달과 90년대 말 이후 정부의 초고속 인터넷 장려 정책을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

광통신 영역에서 통신 장비 및 기자재의 수요 증가에 따라 새로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일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로의 변신을 꾀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고 R&D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같은 노력으로 광섬유케이블 포설기와 광섬유케이블 외피탈피기, 광섬유케이블접속함 등의 자체 개발에 성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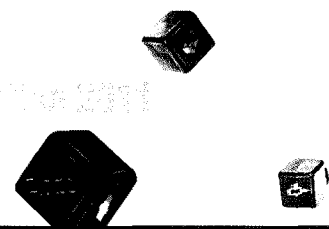
특히 이 회사가 지난 2001년 자체 설계한 광케이블접속함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KT의 납품규격 테스트를 당당히 통과했다. 뛰어난 내구성과 기밀성, 안전성 등을 인정받아 지정 납품업체로 등록된 것. 최초 설계 제품인 중형 광섬유케이블 접속함 'STC-HTM' 과 함께 소형과 대형 접속함 역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후 전국의 KT 광케이블 네트워크 시공 현장에 설치됐다. 2005년 KT가 발주한 서울지역 FTTH(Fiber To The Home) 시범사업에 광케이블접속함 납품업체로 선정된 이 회사는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 본격적인 FTTH망 구축이 진행되면서 제2의 성장기를 맞고 있다.

김규식 사장은 "자체 생산된 제품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2004년부터 해외 시장 개척과 마케팅에 힘을 기울여 왔으며 이미 중국, 태국 등 아시아 지역 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까지 수출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다" 면서 "광케이블접속함은 미국의 글로벌 컴퍼니인 3M 제품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위치에 이르렀다" 고 힘주어 말했다.



케이블 미니접속함

2011 국제 광산업 전시회





세오

- 주소
전남 나주시 동수동 76-1
- 주요제품
영상 및 LED발광장치
- 연락처
061-334-3115
- 대표
이형각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 공급 탄력

영상 및 LED 전문업체인 세오(www.seoitv.com)는 H.264코덱, 비디오서버, 횡단보도 LED발광장치, 지능형교통시스템 솔루션 등 영상과 LED 분야를 개발하는 유망중소기업이다. 영상처리 기술 응용제품에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왔다.

지난 2007년 H.264 코덱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 및 각종 인증을 획득한 뒤 통합관제 시스템, 영상 추적을 통한 무인 주정차 단속, 비디오서버 등 영상관련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해 출시했다. 2009년에는 전남도 특허스타 기업에 선정됐고,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 및 미래 선도 기술 개발 사업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세오는 최근 광주 남구청과 공동으로 보행자의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 를 출시했다.

남구청의 특허를 기술이전 받아 세오가 상품화한 이 제품은 횡단보도의 위치 및 보행자 존재 유무를 차량 운전자에게 알려줘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횡단보도에 적합하게 최적의 광학설계가 된 레이저 빔 형태의 그린 LED조명을 비춰 야간에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수 광학렌즈를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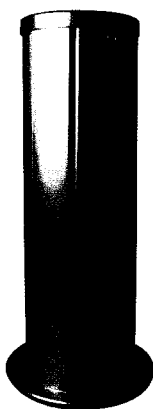
이러한 핵심 기술이 적용되면서 다양한 LED 응용제품 개발과 함께 야간도로 교통환경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 특히 영상과 IT가 결합된 영상블랙박스를 횡단보도내에 설치함으로써 뺑소니 차량으로 인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회사 측은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는 신호시스템이 없는 횡단보도나 스쿨존, 편도2차선 이하의 도로, 장애인이나 교통약자의 이동이 잦은 도로 등에 설치할 경우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중산업간 융합제품 개발에도 응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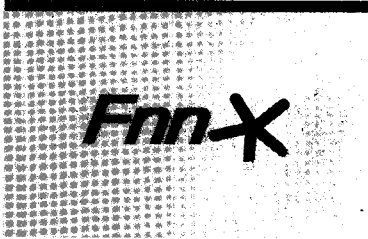
세오는 현재 광주 남구청 보건소 앞 횡단보도 등 7곳에 시범 설치해 주민들로부터 야간 도로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보행할 수 있다는 호응을 받고 있다.

제품이 설치된 공간에서 실효성이 검증됨에 따라 현재 타 시도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설명이다.

이형각 사장은 "횡단보도 LED 발광장치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주변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일종의 '그린IT 공익제품' "이라며 "전기제품 안전기준(EK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추진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품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 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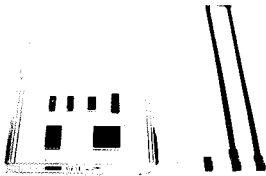


LED 발광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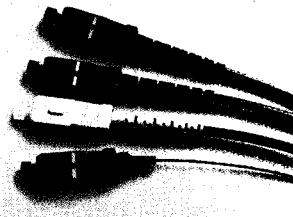


에프엔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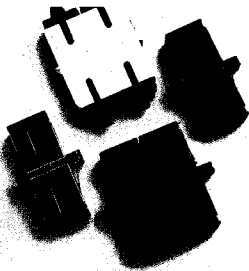
- 주소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9-75
- 주요제품
광대역통합망 구축, 광통신부품, 광케이블
- 연락처
062-973-4401
- 대표
주양진



파이버어레이



광패치코어SC



광아답터SC

창립 6년만에 500% 신장, 무서운 성장세

에프엔엔은 지난 2004년 광주에 등지를 틀면서, 광주시 전략산업인 '광산업' 발전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매년 놀라운 매출 성장과 함께 지난해 10월 신 사옥을 신축하는 등 무서운 성장 속도에 관련 업계 관계자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다.

실제 창업 초창기에 10억 이내에 불과했던 에프엔엔 매출은 지난해 55억원에 이르렀고, 2011년에는 60억을 바라보고 있다. 불과 5~6년만에 400~50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에프엔엔의 주요 생산 품목은 광통신부품이다.

21세기 정보화시대의 꽃이라 부르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인 광대역통합망(BcN)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광통신 부품을 제조하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와 연결된 케이블이 대부분 구리선이었던 시절, 에프엔엔은 유리섬유를 활용한 광케이블 제조에 뛰어들어 시장 선점에 나섰다.

광케이블은 구리섬유에 비해 데이터 전송용이 많고, 전력 소비도 적은 장점이 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에프엔엔은 지난 2005년 벤처기업 지정으로 지정됨과 동시에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됐다.

같은해 ISO 9001·ISO 14001 인증에 이어 자동연마설비도 시설도 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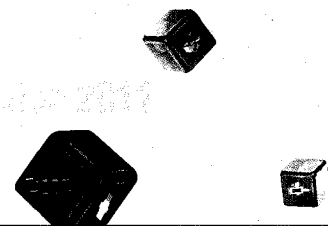
지난달에는 광주시가 선정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도 선정됐다.

시가 지난 6월 유망 중소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관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에프엔엔이 최종 확정됐다.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에프엔엔은 기술과 품질수준, 기술혁신 등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성장성과 안정성, 수익성 등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시는 5억원 한도에서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2년동안 3.5~4%의 이자를 보전해 주며 자금 및 기술, 마케팅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해 경쟁력을 갖춘 유망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주양진 사장은 "광통신 부품제조 및 광통신자재 유통, 시스템 구축지원, 광통신 부품 제조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다"며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실한 자세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오이솔루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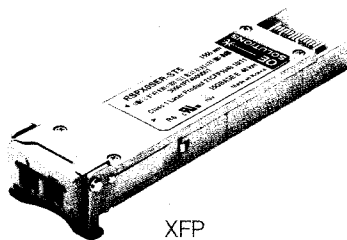
- 주소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4
- 주요제품
광통신용 송수신기, 광트랜시버 모듈
- 연락처
062-602-7813
- 대표
박용관, 추안구

광통신용 송수신기, 세계 선두주자

지난 2003년 설립된 오이솔루션은 광통신용 송수신기를 생산하는 국내 대표적인 광통신 전문 기업이다. 세계 수준의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광통신용 모듈을 생산해 삼성전자 · 알카텔 루슨트 · 노키아지멘스 · 모토로라 등 세계 유수의 IT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회사 설립 이후 자체 기술력으로 2.5기가(G)급 소형 폼 플러그(SFP) 광트랜시버 모듈을 개발한 데 이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맥내광가입자망(FTTH)용 1.25G 이더넷 수동형 광네트워크(E-PON)용 모듈과 10Gbps급 소형 광트랜시버 모듈을 출시했다. 최근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은 광대역부호분할다중접속(WCDMA), 와이브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등 이동통신용 광전송 장비와 와이브로 시스템에 들어가는 광송수신 모듈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힘입어 모바일 와이어리스 이동통신용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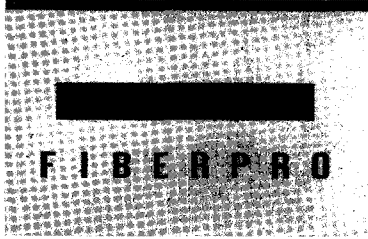
이 회사가 자랑하는 기술은 포토닉 네트워크용 복합 다기능 광트랜시버 모듈이다. 포토닉 네트워크용 복합 다기능 광트랜시버 모듈은 10Gbps급 EML TOSA(Semicooled 50Ω matching miniflat), 10Gbps급 APD ROSA(50Ω matching TO based OSA), 10Gbps급 광트랜시버(40km 용 10Gbps XFP 트랜시버) 기술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기술은 10Gbps 능동소자 제작 기술 확보와 수직 계열화된 광소자 개발 체계 구축, 그리고 산·연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 향후 다른 개발 테마에서도 지속적으로 상호 보완적 기술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글로벌 통신환경은 오이솔루션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고 있다.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매년 이어지고 있고, 비디오와 무선 리솔루션(Revolution), 통신 · 방송 융합 및 유무선 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트래픽의 증가로 초고속 대용량 광부품이 요구되면서 2.5G 제품에서 10G 제품으로 빠르게 교체되고 있는 추세다. 고화질(HD)급 비디오 전용용 광송수신기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등 제품 다변화와 안정된 포트폴리오 구축에서도 결실을 거두고 있다. 최악의 글로벌 경영위기 속에서도 고객 거래처 다변화와 교환율에 대비한 수출 중심 경영으로 지난 2009년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듬해에는 350억원으로 경중 뛰어올랐다. 최근 세계 최대 통신시스템 업체인 미국 알카텔루슨트와 차세대 광가입자망인 10기가비트 PON 시스템 공동 개발에 들어갔다. 이 제품이 본격 상용화될 2014년 이후에는 매출 1,000억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XFP





파이버프로

- 주소
대전 유성구 장동 59-4번지
- 주요제품
편광 스크램블러, 광섬유센싱,
음향케이בל식별기
- 연락처
042-862-9235
- 대표
고연완

글로벌경쟁력으로 승부한다

편광 관련 광통신 측정 장비 및 소자 전문 회사인 파이버프로는 이미 세계 시장에서도 인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가치 창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이 회사는 전체 매출액의 90% 이상을 해외 수출로 벌어들이고 있을 정도다.

이 회사는 급변하는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광통신, 광섬유센싱, 계측학의 3대 기술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 구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제조적 기술 서비스기업으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편광 스크램블러, PMD 발생기, 광소자 특성 측정 시스템 등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편광 관련 솔루션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광 스크램블러는 빛의 특성인 편광이 장거리 광통신에 미치는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제품은 현재 세계의 여러 통신 시스템 회사에 핵심 부품으로 공급되고 있고, 해저 케이블 시장을 포함한 관련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또 광통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주요 부품인 스플리터, 스위치 등 다양한 광소자를 측정할 목적으로 개발한 측정 시스템들도 이미 국내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편광 스크램블러는 빛의 특성인 편광이 장거리 광통신에 미치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관련부품 및 시스템의 생산 시 이들의 광 특성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다.

음향 광케이블 식별기(AFCD)는 통신시장의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획기적인 제품으로 광통신 엔지니어나 기술자들이 맨홀이나 터널, 관로 등에 있는 여러 광케이블 중 원하는 케이블을 쉽고 손상이 가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축적된 다양한 광 기술과 편광 솔루션, 광 소스 기술, 광 파워미터 기술 등을 활용해 광 부품 생산에 필요한 자동 생산 시스템도 개발·판매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레이저 웨elder(Laser Welder) 및 응용 가능한 시장으로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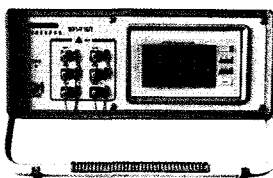
해외 마케팅 전략도 다각화하고 있다.

회사 초창기부터 해외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했던 이 회사는 2000년 미주 지사를 개설, 북미 지역 시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시장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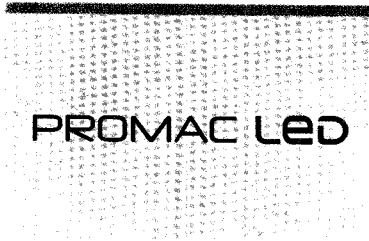
고연완 사장은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 및 지식산업 중심의 제조적 서비스기업으로 도약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CFT810-2



sfi-710t



프로맥엘이디

- 주소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504-6
- 주요제품
LED조명기구
- 연락처
062-974-1300
- 대표
정선태

작지만 강한기업, 성장세 눈에 띄네

광주 하남산단에 자리한 프로맥LED의 성장세가 예사롭지 않다.

최근 특허 출원한 'LED 조명등 S28' 등 자체 생산한 LED 제품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0 국제 광산업 전시회'에 첫 선을 보인 'LED 조명등 S28'은 소방방재청이 권장하는 신상품에 이름을 올렸다.

'LED 조명등 S28'은 평소에는 일반 조명등으로 사용하고 단전이 되었을 때 단전용 비상조명장치로 활용이 가능하다. 조명등 내부에 충전기가 내장돼 있어 정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조명이 다시 켜지며 1시간40분 동안 비상등 역할을 하게 된다.

28와트의 전력으로 메탈할라이드등 150와트의 밝기와 동일한 조명효과를 낼 수 있으며 반영구적인 5만시간 이상의 수명을 자랑한다.

백화점이나 학교, 회의실, 일반상점의 조명등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아파트나 스튜디오, 무대, 기타 지하실 등에서 조명등과 비상등을 겸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60℃ 이하의 낮은 열 발생으로 화재발생 위험이 자극히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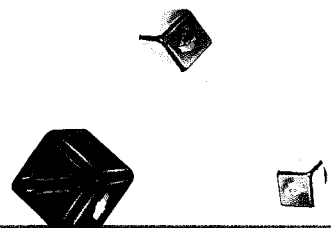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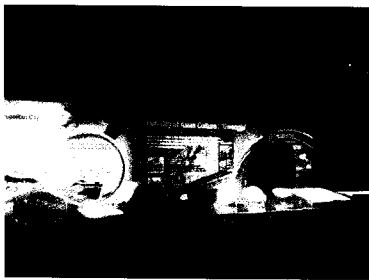
연구개발 등 특허 출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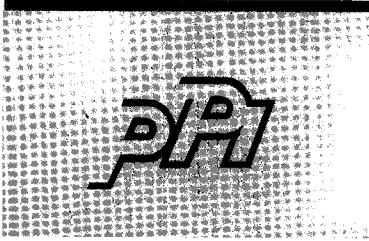
ISO 9901을 비롯해 LED도트 매트릭스 모듈, 블록스캔엘이디 스크린 구동장치, 자연 대류식 방열 기능을 갖는 가로등 기구, 발광다이오드 비상등 구동회로 등 1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LED생산공장을 완공한 프로맥LED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평가한 벤처기업에 선정됐으며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기업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하남산단 1,000평의 부지에 최신 패키지 제조 설비를 갖춘 프로맥LED는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연간 3,000만개의 LED 패키지를 양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타 지역에서 패키지를 공급받던 지역 LED 조명제품 생산업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태 대표는 "그동안 ISO 9001(품질경영)과 140001(환경경영) 인증을 받았으며 KS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등의 국내인증과 CE 등 각종 국제 인증을 추진 중"이라며 "패키지부터 조명등 등 완제품까지 생산되는 수직계열화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피피아이

- 주소
광주시 북구 대촌동 958-10
- 주요제품
광파워분배기, 분배단자 모듈
- 연락처
062-972-0116
- 대표
김진봉

광통신부품 다기능화 통해 해외시장 돌풍

광주 광산업의 대표적인 선도 기업 중 한곳인 피피아이는 광통신 부품 제조업체로 1999년 전남대 학내 벤처기업으로 출발했다.

평판광도파로(PLC · Planar Lightwave Circuit) 기술을 바탕으로 닙내광가입자(FTTH, Fiber to the home)망의 핵심부품인 광파워분배기와 광파장분배기를 개발해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미국 광파워 분배기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6년부터 KT와 하나로 통신의 모든 광파워 분배기의 성능 인증 테스트(BMT)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다.

주력 제품으로는 광파워분배기와 분배단자 모듈(AWG)이 있다.

광파워분배기는 전화국이나 케이블방송국에서 하나의 광케이블을 통해 전달되는 신호를 여러 가입자로 분리 및 전송하는 데 사용하는 광가입자망의 핵심 부품이다.

분배단자 모듈은 하나의 광케이블에서 여러 방향으로 통신이 가능하도록 광신호를 분배해주는 기능을 하는 부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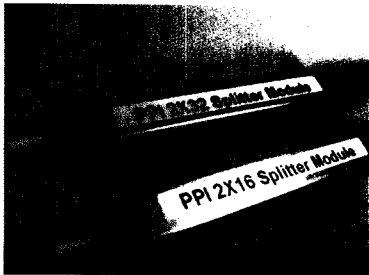
이와 함께 광파장 분할기는 KT가 개발 중인 파장분할 수동형 광네트워크(WDM-PON)에 이용될 제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제품은 영상 · 전화 · 데이터 등의 대용량 신호를 하나의 광선로에서 16,32가입자로 동시에 분리해 초고속으로 전송하는 일대일 방식이다. 광통신 시설이 미약하고 면적이 큰 국가적으로 장거리 전송 구간이 필요로 하는 중국, 인도 등의 광통신백분망 설치 구간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작년에만 180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피피아이는 중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 수출길을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회사는 평판광회로기술을 100% 국내기술로 개발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으며 핵심장비의 국산화와 전 공정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안정된 양산체계를 갖추고 있다.

피피아이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된 경영구조 및 고용인력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 제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진봉 사장은 "내수 확대에 따른 제품 수출 및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중국 · 유럽 등 신규 세계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시장의 변화에 다각적으로 대응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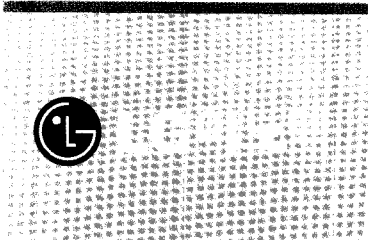


splitter module 2x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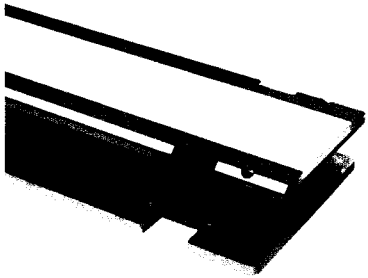
splitter module 1xN





LG이노텍

-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번지
서울스퀘어 20층
- 주요제품
고출력 패키지, LED조명 모듈
- 연락처
02-3777-1114
- LED사업부
031-937-1333
- 대표
허영호



초슬림 평판 모듈 모듈라 1D(ModulA 1D)



대구경(6인치) 에피웨어퍼 제조기술

LG이노텍, LED소재부터 실내외 조명모듈까지 첨단 솔루션 선보여

LG이노텍(대표 허영호)이 10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1 국제광산업전시회'에 참가한다. LG이노텍은 차별화된 LED 사업 경쟁력에 기반해 고객과 세상을 밝힌다는 'Light your brand, Light your world'를 슬로건으로 LED 에피웨이퍼 및 패키지 등 핵심 소재·부품부터 아웃도어(Outdoor), 인도어(Indoor) 조명모듈에 이르는 첨단 LED 솔루션을 보여준다.

먼저 컴포넌트(Components)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대구경 에피웨이퍼 제조 기술에 기반한 6인치 LED 에피웨이퍼(Epi-wafer)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대부분의 LED 업체들이 2인치에서 4인치를 거쳐 6인치 생산을 하는 반면 LG이노텍은 높은 기술 경쟁력으로 2인치에서 바로 6인치 전환에 성공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고출력 LED패키지와 LED 드라이버(Driver)도 선보인다.

아웃도어(Outdoor) 부문은 한 개의 모듈을 다양한 용도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제품인 15와트급 아웃도어용 LED 모듈이 눈에 띈다. LG이노텍 15와트급 아웃도어용 LED 모듈은 극한 상황의 실외 환경에서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품으로 완벽한 방진 방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IP67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전기제품 안전성에 대한 미국 국제공인 안전규격인 UL인증과 광생물학적 안전성 및 등기구 적합성에 대한 규격인 유럽 CE인증도 획득했다.

인도어(Indoor) 부문에서는 모듈라(ModulA) 1D, 앵글라(AngulA), 리플렉타(ReflectA)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은 다양한 제품들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다. LG이노텍 모듈라 1D는 세계 최고 수준의 LED 백라이트유닛(BLU)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초슬림 평판조명모듈이다. 모듈라 1D는 두께가 8mm에 불과한 초슬림형이면서도 균일한 조명 연출이 가능하고 조립 및 분리가 쉬운 착탈식 시스템으로 확장성이 뛰어나 LED조명의 표준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되는 제품이다. 특히 모듈라 1D는 지난 5월 아시아 업체 최초로 기능적 완성도 및 기술적 혁신성을 인정받아 미국에서 개최된 LFI Innovation 어워드의 조명부품 및 하드웨어(Specialty, hardware, lamp holders, component) 부문 위너(Winner)로 선정된 바 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LED 핵심소재부터 조명모듈까지 가까운 미래에 생활 깊숙이 자리잡을 LED 제품 및 기술을 한 자리에 모았다"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첨단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